

● 도서관 핸드북 (1)

十進分類法

專門委員長 張 一 世

圖書館이, 歷史的으로 이야기 하여서, 언제, 어디에 맨 처음 세워졌느냐를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이 分類法이 언제부터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古代 앗시리아 바비로니아 文化를 대표하는 앗스르바니팔 王室圖書館이 1850年頃 英國의 探查隊에 의하여 發掘되고, 그 圖書館이 紀元前 668年~626年에 있었던 도서관이고, 그 도서관에 所藏된 많은 粘土版圖書가 발견되는 동시에 主題에 따라 排列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古代부터 分類法이 존재하였었다는 것은 확인 되었다.

分類法이란, 한마디로 이야기 하여서, 圖書를 利用하고자 하는 분들이 찾고자 하는 圖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主題別로 일정한 조직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을 말한다.

圖書館이란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자료를 所藏하는 곳이어서, 따라서 分類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미리 잘 細分된 分類表를 마련하고, 누가 分類業務를 담당하던지 같은 主題에 관한 圖書가 항상 같은 곳에 모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目的하는 圖書를 찾는 데 있어서는, 圖書가 體系的으로 배열되어 있을 경우, 관련된 圖書를 索出하기에도 편리하므로 分類表는 가능한한 體系的으로 만들어 져야한다.

그러므로 古代에 존재하였던 分類表도 그 나름대로 體系的으로 만들어 졌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知識과 科學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組織化되고 細分화된 分類表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分類表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分類表를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實用的이라 할 수 있으므로 分類表를 만드는 경우에는 體系的, 論理的으

로서, 1873년에 試案을 만들었으나 世上에 公表하기는 1876年 이었다.

그런데 듀이가 十進法을 分類表에 도입한 점이 가장 두드러진 特徵이라 할 수 있다. 十進法이란, 즉 미터法과 같은 것으로서, 열(10)을 기준으로 展開하는 方法을 말한다. 즉, 예를 들면 10mm가 1cm가 되고, 10cm는 1 decimeter가 되며, 10 decimeter가 1m로 되는 것과 같다.

分類에 있어서는 모든 知識을 10으로 나누고 10으로 나누는 하나 하나의 主題를 다시 10으로 展開하며, 그 展開된 또 작은 主題를 다시 10으로 展開하는 式的 分類法을 十進分類法이라 한다.

듀이가 이와 같은 十進式方法을 分類法에 도입한 理由는 누구나가 쉽게 理解하는 十進法을 이용함으로써 圖書의 分類도 實用的으로 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10單位의 기본이 되는 아라비아 數字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共通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우 國際的이라는 점에서 였다. 즉, 나라 마다 言語가 달라서 서로 통하지는 않아도 아라비아 數字만은 다 서로 잘 통한다.

듀이는 知識을 1. 哲學, 2. 宗教, 3. 社會科學, 4. 語學, 5. 純粹科學, 6. 技術科學, 7. 藝術, 8. 文學, 9. 歷史의 아홉가지로 나누고, 그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圖書를 0을 주어 總類라 하여 결국 모든 知識을 10類로 나누었다.

이 10類는 다음 단계에서 1類가 다시 각기 열로 나누게 되어 2단계의 展開로서 100으로 區分되고, 이 100으로 區分된 것의 하나 하나가 다시 열가지로 전개되어, 결국 3단계에서는 1,000區分으로 展開된다. 이와 같이 展開되므로 十進分類法이라 한 것이다.

chiefly to  
as a les't,  
나타나 있  
와 틀리는  
누어 쓴 것